

우리 엄마는 고릴라

👑 <한 줄로 정리하기!>

책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아래의 칸을 채워 보세요.



유지은 글 | 김준영 그림 | 책따지 펴냄

주요 사건

어떤 일이 일어났나요?

등장인물

누가 나오나요?

우리 엄마는 고릴라

느낀 점

무엇을 느꼈나요?

상상, 짐작

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?



- 🌸 모건이는 카메룬에서 온 새엄마 아멜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.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모건이와 아멜리의 성격은 각각 어떠한지 간단히 써 보세요.

모건이

.....

아멜리

.....

- 🌸 모건이는 새엄마가 카메룬 사람인 걸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.....

.....

- 🌸 짓궂게 구는 호재와 승욱이를 피하려고만 하는 모건이에게 한별이는 무어라고 말했나요?

.....

.....

- 🌸 호재와 승욱이가 다시 한번 모건이의 새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자, 모건이는 더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.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넣어 보세요.(힌트 77~79쪽)

“야, 강, 강호재! 이승욱!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랬지? 왜 자꾸 이상한 말 하면서 나 놀리는 거야?

내 말 똑바로 잘 들

어! 앞으로 또 그딴 헛소리 하면 진짜 혼내 준다. 알겠어?”

- 🌸 공항까지 새엄마를 마중 나간 날, 모건이가 적은 환영 문구는 무엇이었나요?

.....

.....



- 이 책의 제목이 <우리 엄마는 고릴라>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작가의 입장이 되어 그 이유를 짐작해 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목을 붙였을지, 아래 빈칸을 채워 가며 글로 써 보세요.

이 책의 제목이 <우리 엄마는 고릴라>인 이유는

내가 작가였다면 제목을

라고 붙였을 것이다.

왜냐하면

때문이다.

- 지구 밖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'내 편'은 누구인가요?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.

.....

.....

- '당당하다'는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는 뜻입니다. 당당하다와 비슷한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3가지만 써 보세요.

.....

.....

-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불편했던 모건이와는 달리, 아빠는 국적과 인종은 가족이 되는 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요. 여러분은 가족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.....

.....

- 호재와 승욱이처럼 무례한 말을 거리낌없이 하는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? 여러분이 모건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.

.....

.....

실력이 쑥쑥 날말 퀴즈



다음은 <우리 엄마는 고릴라>에 나오는 날말입니다.

다음 날말에 알맞은 뜻풀이를 선으로 이어 보세요.

능청 24쪽 •

주눅 74쪽 •

오기 41쪽 •

생판 71쪽 •

해코지 44쪽 •

대뜸 37쪽 •

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.

예 혹시라도 호재가 나를 할까 봐 그랬을 거예요.

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.

예 간죽이며 놀려 대는 호재와 승욱이를 보고 있자니 가 생겨서 한별이와 나는 있는 힘을 다했어요.

어떤 일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상관하지 아니하는 상태.

예 모르는 나라에 와서는 어쩔 그렇게 썩썩한지, 나도 아멜리를 보고 많이 배웠어.

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곧.

예 호재는 나를 보더니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.

속으로는 엉큼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태도.

예 처음 만났는데도 한별이가 거침없이 을 피우자 새엄마는 무척 재미있어했어요.

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.

예 축구부에서 늘 이 들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, 주전으로 뛰고 싶은 마음은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.

빈칸에 어울리는 날말을 [보기]에서 찾아 써넣으세요.

[보기]

흘끔대는

54쪽

능글맞은

23쪽

비아냥

55쪽

뭉클

13쪽

멋쩍어서

20쪽

고작

68쪽

조끄맏고

74쪽

[1]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어서 가슴이 할 때가 있어요.

[2] 나는 아직 인사하는 것도 새엄마를 향해 굽실 고개만 숙였어요.

[3] 한별이는 나와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구석이 있어요.

[4] 승욱이가 내 말투를 흉내 내며 거렸어요.

[5] 모건이 애는 자기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해서 주전 같은 건 기대도 안 하고 있을걸!

[6] 새엄마와 몇 달 같이 살았을 뿐인데 말이에요.

[7] 사람들 시선이 불편해서 두세 발자국 떨어져서 걸었거든요.